

해외 유관기관 관계자 일행 방문 잇달아

중국 지식산권국(특허청) 샤오싱웨이(肖興威) 차장을 주축으로 한 방문단 일행이 지난 5월 18일 우리 원을 방문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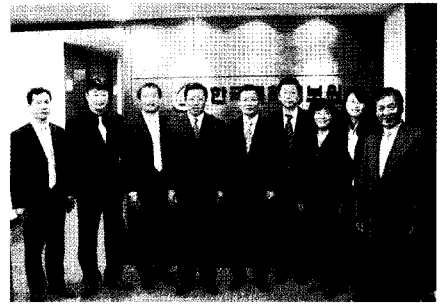
이들 방문단은 중국 특허청 및 중국 특허청 산하기관인 규획발전사, 특허문헌부 지식재산도서관, 중국특허정보센터 등에서 총 7명으로 구성되었다.

한국 특허청의 특허행정지원을 담당하는 우리 원의 업무현황 등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방문한 이번 중국 방문단은 우리 원과의 원활한 업무협력관계를 구축하기를 희망했으며, 지속적인 교류를 요청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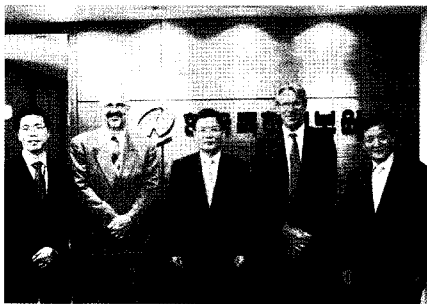
이에 앞서 지난 5월 17일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마드리드 담당 Neil Wilson 국장과 Roger Holberton 과장 등 2명이 우리 정보원을 방문, 양 기관의 업무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이들은 상표 및 디자인 조사분석업무에 크게 관심을 나타내며, 실제 운영 실무를 직접 관찰하기도 했다.

아울러 지난 6월 9일에는 세계적인 특허정보서비스 기관인 Lexis Nexis, 10일에는 IP.com의 관계자 일행이 우리 원을 방문, 상호 협력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한국특허정보원 소식



중국 지식산권국(특허청) 방문단



세계지적재산권기구 (WIPO) 방문단

■ 한국특허정보원 이사회 신임 이사, 감사 선임

한국특허정보원은 지난 6월 1일 이사회(이사장 한민구)를 열고 지난 4월 말로 임기가 만료된 선임직 이사에 대해 신임 이사를 선임하였다.

이번에 새로 선임된 이사는 지난 해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선임직 이사 중 중소기업 이사 위촉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이란 내용을 수용하여 대기업이 아닌 중소·중견회사에서 2명의 이사를 위촉하였다.

이번에 새로 위촉된 선임직 이사는 LG전자(주) 이정환 특허센터장(부사장), 주성엔지니어링(주) 황철주 대표이사 사장, 그리고 김두훈 유니스(주) 대표이사 사장이 선임되었다.

이정환 신임 이사는 (현)한국지식재산협회의 초대회장으로서, 지식재산권 분야의 남다른 식견과 역량을 두루 갖춘 인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지난해에는 지식재산분야의 최고권위의 전문잡지 MIP(Managing Intellectual Property)가 선정하는 ‘2009년 지식재산분야에서 가

장 영향력 있는 세계적 인물 50인(The 50 most influential people in IP)’에 올랐다.

황철주 신임 이사는 1995년 주성엔지니어링을 창업한 대표적인 벤처 1세대 기업인이다. 또 ‘벤처1000억 기업’ 위주로 중견벤처의 지속 성장을 위해 발족된 ‘글로벌중견벤처포럼’의 초대의장을 맡고 있다. 올해 2월 벤처기업협회 회장에 선임되기도 하였다.

김두훈 신임 이사는 대기업인 대우그룹에서 1994년 당시 중소기업인 유니스(주)로 이직하여 오늘날 풍력발전 등 신재생 에너지 전문기업의 반열에 올려놓은 인물이다. 2005년 4월에는 국내 최초의 대단위 풍력발전 단지인 영덕풍력발전단지를 건립하기도 했다. 최근에는 지식경제부가 주관하는 ‘2010년 우수제조기술연구센터(ATC)’에 선정됐다.

한편, 2명의 감사는 모두 연임되었다. 이번에 선임된 이사 및 감사는 아래와 같다.

구 분	성 명	소 속	임 기	주 요 경 력
선임직 이 사	이정환	LG전자(주) 특허센터장 (부사장)	10.06.01 ~13.05.31	(현)한국지식재산협회의 초대회장 LG Phillips LCD 상무
	황철주	주성엔지니어링(주) 대표이사 사장	10.06.01 ~13.05.31	(현)벤처기업협회 회장 (현)글로벌중견벤처포럼 초대의장
	김두훈	유니스(주) 대표이사 사장	10.06.01 ~13.05.31	유니스 천안본사총괄 부사장 유니스 기술연구소장 전무이사
감 사	박병창	팍스 국제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10.06.01 ~13.05.31	특허청 항고심판국장 특허청 운수기계심사담당관
	선종철	두성 국제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10.06.01 ~13.05.31	특허청 심판관 특허청 발명정책과장